

漢詩·詩話·批評의 역사다룬 勞作

문학작품으로서의 漢詩의 의미와 기능

韓國漢詩의 理解

李丙疇 著
民音社/A5신/324면/4000원

한국고전비평연구

全鑿大 著
책세상/A5신/284면/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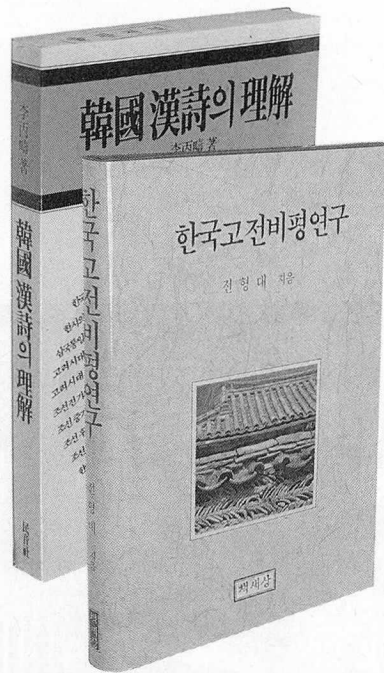
李丙疇선생의 「韓國漢詩의 理解」와 全鑿大 교수의 「한국고전비평연구」는 여러 해에 걸쳐 연구논문으로 발표하고 책으로 엮어낸 업적들을 손질하고 다듬어서 이번에 각각 다시 책으로 꾸며낸 것이다. 그러나 두 책은 모두 우리나라 漢詩를 아끼는 각별한 애정으로 이룩된 성과이다. 세속의 인가나 밥벌이 연구 이상의 사랑과 집념이 없이는 결코 이룩될 수 없는 노작이다. 그토록 힘든 漢詩文을 깨치고 번역하여 그 역사적인 흐름까지도 한꺼번에 꿰뚫는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우리 漢文學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애쓴 진실만으로도 이 책들은 그 값어치를 인정받아 마땅하다.

漢文學史는 전통적으로 文言으로 된 詩文의 역사이며 그 가운데서도 詩가 주종인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문학연구도 논문의 형식을 갖추면서 학술지에 발표되기 시작하였지만 이 무렵의 연구는 대부분 소설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작품외적인 사상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예술로서의, 문학작품으로서의 한시의 의미와 기능은 거의 간과되었던 것이다.

1960년대 초반에 이르러 漢詩批評에 대한 연구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한문학연구는 열을 올리게 된다. 물론 본격적인 이론서가 殆無한 우리 나라 비평사의 현실에서 보면 詩論에 대한 연구는 처음부터 그 한계가 豫料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된 현실에서는 詩論이나 批評에 대한 연구가 한시에 접근할 수 있는 간접적인 연구방법으로서는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형대교수는 70년대 초반에 석사논문으로 「麗朝詩學研究」를 발표하였으며, 이 뒤에 계속해서 발표된 동문들의 석사논문들을 한데 묶어 「韓國古典詩學史」를 간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기논문을 다시 확대하여 박사학위논문으로 「高麗朝批評文學研究」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동안에 따로 발표한 朝鮮時代의 詩話批評에 관한 논문들도 있었으므로 이번에 이것들을 다시 손질하여 단독으로 이 「한국고전비평연구」를 펴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全篇이 2部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부는 高麗朝批評文學研究이며, 제 2부는 朝鮮時代의 詩話·批評研究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가장 힘을 들인 부분은 高麗朝批評文學研究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미 박사학위논문으로 발표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의 중요 詩話書인 破閑集·白雲小說·補閑集·樸翁稗說 등을 총망라하여, 이들 시화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批評意識·作法論·本質論, 그리고 실제비평의 展開樣相 등을 두루 점검하고 있어 고려시대 비평의 실체를 사실대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60년대에서 비롯하여 70년대의 시론연구에서 과다하게 노출된 「用事」나 「新意」 문제를 모두 作品論에서 소화하면서, 李仁老를 用事論者로, 李奎報를 新意論者로 추켜올린 종래의 誤謬를 시정한 것은 그동안의 시학작조를 제자리에 옮겨놓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 시화서가 지니고 있는 비평사적 의미를 하나의 체계속에 통일하여 고려시대 비평의 큰 자국을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이르지 못한 미흡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 2부는 三國史記의 문학적 가치, 李奎報의 詩研究, 三國遺事의 批評文學의 價値, 朝鮮時代의 詩話, 東人詩話研究, 許筠의 批評意識, 九雲夢에 나타난 批評意識, 時調集에 나타난 文學意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물론 조선시대의 비평양상을 탐색해야 할 차례이다. 그래서 「朝鮮時代의 詩話」 「東人詩話研究」 「許筠의 批評意識」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가 힘들이고 있는 것은 개별 작품에 대한 실제비

평의 양상을 뽑아내는 일보다는 작자의 비평 의식을 탐색하는 쪽이다.

그러므로 「三國史記의 文學的 價値」나 「三國遺事의 批評文學의 一面」에서도 史書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비평의식을 찾아내고 있으며

우리의 漢文學史는 전통적으로 文言으로 된 詩文의 역사이며, 그중에서도 詩가 主宗을 이룬다. 따라서 詩論이나 批評에 대한 연구가 漢詩에 접근하는데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다.

「李奎報의 詩研究」 역시 시 속에서 시를 말하고 있는 이규보의 詩觀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九雲夢에 나타난 批評意識」이나 「時調集에 나타난 文學意識」을 통하여 소설 속에 끼여있는 間詩의 기능을 살피고 있으며 소설의 문맥 속에 일렁이고 있는 시적인 분위기를 찾아내고 있다. 특히 「時調集에 나타난 文學意識」에서는 時調集의 序跋에서 보여준 文學觀念을 뽑아내고 있거니와, 이러한 노력은 조선시대 비평의 폭을 國文詩歌에까지 확산시키려는 저자의 계획된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다만 이 책이 기본적으로는 연구논문집이지만, 조선시대의 한시비평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실제비평이 이 연구에서 疎漏되지 않았다면 연구사의 구실도 함께 다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해두고 싶다. 그리고 책의 편제상 제 2부를 조선시대의 비평연구로 압축하기 위해서는 「三國史記의 文學的 價値」 「李奎報의 詩研究」 「三國遺事의 批評文學의 一面」 등의 처리방법은 따로 모색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李丙疇선생의 「韓國漢詩의 理解」는, 우리나라 漢詩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물어 왔을 때, 그 대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첫번째 책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杜詩研究로 학자의 일생을 내맡긴 저자가, 우리나라 한시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杜詩의 遺響을 깨는 과정에서 얻어낸 韓國 漢詩의 길잡이 책이다. 일찌기 1959년에 「韓國漢詩選」을 펴내고 근년에 다시 「고전의 산책」을 엮어낸 저자의 편에서 보면 이 「韓國漢詩의 理解」는 언젠가는 나오고

말 책이 마침내 出刊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全篇을 14장으로 分章하고 있지만, 3장에서 10장까지는 모두 시대별로 중요한 한시 작품을 번역 해설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 한시의 역사적인 흐름을 대강은 짐작할 수 있게 꾸며지고 있다.

제1장은 「한국 한시의 이해 길라잡이」 제2장은 「한시의 이해」로 서설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제3장 「삼국통일 전후의 한시문학」에서는 한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신라의 한시문학까지 다루고 있으며, 제4장 「고려시대의 한시문학」에서는 김부식에서 비롯하여 이송인에 이르는 대표적인 작품만을 골라서 풀이하고 있다. 제5장 「고려시대의 선가시」에서는 고려대에 이르는 스님들의 시만을 따로 다루고 있으며 제6장 「조선전기의 한시 문학」에서는 조선의 건국에서 비롯하여 임진 병자란 전후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 제7장 「조선 중기의 한시 문학」에서는 세칭 三唐詩人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풀이하고 있으며, 제8장 「조선후기의 한시 문학」에서는 병자란 이후 正祖 전후까지로, 제9장 「조선말기의 한시 문학」에서는 한말 이전까지의 역관문학을 중심으로 한 중인문학의 대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10장 「한말의 한시 문학」에서는 庚戌國恥를 전후한 시기의 한시 작품을 주로 다루고 있다. 제11장에서 14장까지는 조선시대의 선가시, 우리나라 여류의 시문학, 우리나라의 시화, 우리나라의 논시절구 등을 다룬다. 이것이 없어도 책 모양을 갖출 수 있지만, 안내서의 구실에 보다 충실하게 값하기 위하여 보태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곳은, 운문의 높은 경지를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하여 편마다 감동적으로 시를 번역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두시의 향내를 느낄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두시에서 온 근거를 빠짐 없이 일일이 밝혀내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譯詩에의 감동이 지나칠 때 원시의 깊이나 婉曲을 깎아 내기 십상이라는 걱정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閔丙秀

서울대 국문과 교수. 서울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 졸. 문학 박사(서울대). 저서 「한국의 지혜」 「韓國漢文學講解」外. 1936년생.